

제43차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피정을 다녀와서

의료인의 사랑 소명과 의료인이 겪는 고통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있다.



강준기 도밍고 원장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명예회장
강남베드로병원 명예원장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제43차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피정 겸 총회가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고영조 교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피정은 전국 8개 교구에서 회원 및 가족 약 70명이 참가하여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준비하면서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대표 담당사제이신 이동익 신부님과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지도 신부이신 김평만 신부님, 프란치스코수도회 박장원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드렸으며, 성모교육원 동산과 산길을 따라 로사리오 행렬을 하며, 다가오는 부활절 준비에 정성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김평만 신부님의 피정 강의의 주제는 “사랑의 소명과 의료인이 겪는 고통의 의미”였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갖은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는, 바로 그 길이, 우리 의사들의 삶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었다.

사랑의 소명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과 마음, 육신 3부분으로 되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정상적인 생활이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무리 마음을 정리하고 육신이 건강하여도 영이 혼돈되면 인간 그 자체가 망가지는 것과 같다. 타인의 죄 때문에 내가 간접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여도 진실한 용서가 되지 못하고 고해성사를 보아도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풀리지 않는 죄 의식과 욕심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말끔히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꾸만 하느님과 멀어지고 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를 미리 알아차리시고 인간과 하느님과의 먼 거리를 십자가의 가교를 놓아서 거리를 좁혀주시어 다시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하여 주신다. 요한 복음 8장 간음한 한 여인의 죄에 대하여, 당시 법규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세상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들의

환자들은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의료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자들과 함께
 꾸준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엄청난 일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환자들을 돌보시게 되었나, 신약성경에는 병자들의 치유에 관련된 복음이 41개나 있으며 복음서에 20%를 차지한다.

그분은 왜 병자들의 고통에 민감하셨을까? 그 당시 소외 받은 자들 중, 나병환자(몸과 마음에 병을 가짐), 가장 버림받은 자, 소경, 귀머거리, 앓은뱅이, 중풍병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치유 받은 이들 에게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 치유하여 주신 범주는 대체로 3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일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 둘째, 나병환자
- 셋째, 악령 들린 사람이었다.

일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고 육체 적 질병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왜 나병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관심이 많으셨을까? 나병환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많이 지어 버림받고 고통 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악령이 들린 환자들은 중독환자로, 마약, 술의 중독으로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써, 악령은 끊어 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인으로서의 고통은 무엇인가?

환자들은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의료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자들과 함께 꾸준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세 번 넘어지실 때, 시몬이 대신 십자 가를 지고 또 베로니카 성녀, 성모님, 막달레나 등이 피땀을 씻어 주고 어루만 쳐 드리는 그 마음의 행위가 바로 의료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다.

